

# 학문에 충실하고 국가 위기엔 칼을 들어라

##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21>

제5부-도전정신과 정의로 빛어낸 역사

⑤ 한말 의병 이끈 당대 최고의 학문 '노사학(蘆沙學)

김봉곤 원광대 연구교수

호남 유학사 중에 독창적인 학설을 수립하고 오랫동안 강학 활동에 힘써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한 인물로는 단연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1798~1879) 선생을 손꼽는다. 노사 선생은 조선 후기 내내 논란이 되었던 인물상동이론을 이일분수(理一分殊) 철학 체계로 일거에 해결해 조선조 6대 성리학자로 받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 서구 제국주의 침략이 잇따르자 위정척사운동을 전개, 프랑스 침략을 막아냈다. 이런 노사 선생의 학문과 정신은 그의 문인들에게도 이어졌다. 노사 선생의 문인들은 직전, 재전을 포함하여 4000여 명을 상화한다. 문인들 역시 기정진의 주리철학과 위정척사사상을 계승해 한말 일제 침략 속에서 호남 지역 의병운동을 주도,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됐다.

노사 선생은 전북 순창 북흥에서 태어났으나, 양친이 세상을 떠난 18세 이후에는 장성에 출근 거주했다. 그는 늘 궁해 여러 번 이사를 다녔는데, 결국 자신의 운명에 굴하지 않고 학문에 힘써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그 중 청나라 사신인 우리나라에 낸 문제를 푼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서울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기정진이 홀로 해결하자 당시 국왕은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의 안목이 장성에 사는 외눈보다 못하다.(長安萬目不如長城一目)”는 평가를 했고 이후 장성을 ‘선비의 고장’ 또는 ‘문향골’로 부르게 된 계기가 됐다.

이처럼 인생과 천리에 깊이 통찰했던 노사 선생은 46세 되던 1844년 여름 장성 남암(南庵)에 피서하면서 ‘남암사의(南岩私議)’를 짓고 난 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아내가 남편의 지위를 빼앗고, 신하가 임금의 지위를 빼앗으며, 오랑캐가 중화(中華)의 지위를 빼앗는 세 가지는 천하의 대변이다. 그런데 기(氣)가 리(理)의 지위를 빼앗는다면 저 세 가지 변과는 곧 차례로 올 일이다.(妻奪君位 臣奪君位 夷奪華位 若氣奪理位 則彼三變者 卽次第事耳)”

이것은 기(氣)를 중시하고 리(理)를 천시하면 국가 간이나 군신, 가족 간에 중대한 변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기정진은 기호학계의 호론과 낙론이 모두 리(理)의 분수를 기(氣)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천명과 성의 분열이 일어나고, 학계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 노사 선생은 리일(理一)에 이미 분수(分殊)가 내재돼 있다고 보아야 천명이 주재하며 리가 기를 주재하게 된다고 했다.

노사 선생은 1862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조세부정에 항거해 곳곳에 민란이 일어나자 ‘임술의책(壬戌癸丑之策)’을 지어 지배층의 잘못을 질타했다. 선생은 예의엄지를 지켜야 할 사대부들이 이익을 다투는 마음 때문에 곳곳에 부정이 일어난다고 파악하고 공공(公共)에 바탕을 둔 사회·정치질서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는 양반 등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원의 남벌과 과거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천하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개혁론은 고창의 안중섭이나 강인회, 정하원, 장성 기양연, 담양 이희선 등 문인들에게 계승됐고 그들은 사대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습속을 바꾸고 삼정의 제도적인 측면이나 토지소유의 불균등을 해소하고자 주장했다. 이는 후일 1894년 고창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기본 토대가 됐다.

그는 또한 프랑스군이 쳐들어오자 조정에 6조에 달하는 내수외양책(內修外攘策)을 주장, 인심을 결집시켜 프랑스군의 침략을 막아냈다. 이 6조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속성을 깊이 파악한 명문으로서, 언로와 인제 등용, 신분과 관계없는 군사훈련을 통한 내수책과 외적을 요격하지는 전략을 마련한 외양책으로서 당시 가장 적절한 외적 방어책이기도 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기정진에게 공조참판·경연특진관(經



장성 고산서원(高山書院)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 1878년 정사(精舍)를 지어 담대헌(澹軒軒)이라 이름짓고 학문을 강론하던 곳으로 후손들이 1924년에 중건한 후 1927년에 고산서원(高山書院)이라 편액을 걸었다. 전남도 기념물 63호다.

### 조선 6대 성리학자 노사 기정진

‘리일분수’ 평가 氣를 주재한다 주장

사대부 이익 다툼에 부정 생긴다 질타

공공 기반 둔 사회·정치질서 개혁 설파

### 한말 위정척사·호남 의병 ‘주춧돌’

공동체 책임·의리 강조...동학혁명 토대

내수외양책으로 프랑스 침략 막아

노사 학문과 정신 호남지역에 계승

### 대학·사회 등 기초연구기관 전무

노사학 연구소 건립 학파 재건 힘써야

筵特進官)을 제수하여 깊이 감사를 표했다. 실로 기정진의 방책은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노사 선생의 내수외양책은 조선조 말 의병운동으로 계승됐다. 노사 선생의 손자인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은 1896년 장성과 나주 일대의 향촌군사력을 모아 일제에 대항했고, 노사 선생의 문인이었던 녹천(鹿川) 고광순(高光詢)과 성재(省齋) 기삼연(奇參衍) 역시 1896년 의병운동에 이어, 1907년에는 일제의 지형적 이점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일제와 맞섰다. 특히 기삼연의 전략은 향촌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정과 군사력을 마련하고 유리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적을 격파한다는 것으로서 기정진이 마련한 방어 전략을 계승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도 노사 선생의 문인과 후학들은 노사 선생의 주리철학과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 인의도덕에 기반한 유학을 숭상하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서구적 가치에 반발하여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리를 강조했다. 이러한 노사 선생의 학문과 문인들의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영, 호남지역에 강인하게 계승돼 곳곳의 의리를 지키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와 그의 문인들에 관한 연구는 현재 어떠한가. 나란히 조선조 6대 성리학자로서 평가받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은 1978년부터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이 설립돼 매년 4차례씩 퇴계학보를 간행하고 있고, 영남 지역에는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연구소가 설립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일본이나 대만, 미국, 독일이 각각 퇴계연구소가 있다.

울곡(栗谷) 이이(李瑀) 선생의 경우에도 울곡연구원이 설립돼 매년 2차례씩 울곡학보를 간행, 현재 34집에 이르고 있으며, 울곡교육원을 만들어 울곡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사 선생의 경우는 대학이나 사회에 기초 연구기관이 전무하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10대 문장으로 유명한 영재(寧齋) 이간창(李建昌) 선생은 노사 선생의 학설을 중국이나 조선에서 그 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학설이라고 했다.

퇴계 선생이나 울곡 선생이 훌륭하지만, 노사 선생과 그의 문인들의 활동도 그 못지 않은 것이다. 서둘러 노사학연구원이 수립돼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길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박사급 연구원 역임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 역임  
-고산서원 장의

### 전라도 들여다보기

#### 순천 낙안(樂安)읍성

김형주

#### 조상들의 따스한 숨결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민속박물관

백성을 즐겁고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웅성 깊은 애민정신이 깊게 스며있는 낙안읍성은 고려 후기 남해안 일대에 왜구들이 자주 출몰하자 1397년에 낙안 출신의 절제사(節制使)인 김빈길(金賓吉)이 흙으로 성곽을 쌓은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1424년 9월부터 성벽 재료를 돌로 고쳐 쌓으면서 원래의 규모보다 크게 확장되었으며 1450년에 마무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벽의 둘레는 1385m에 이르며 동문터의 남쪽 부분이 가장 완벽히 남아있다. 높이는 4.2m이고, 위쪽 너비와 아래쪽 너비는 각각 3~4m, 7~8m이다. 아래쪽에 커다란 석재를 이용하여 쌓아 올리면서 틈새마다 작은 돌을 채기박을 하였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석재의 크기를 줄였다. 또한 성문은 3곳이었는데 웅성을 두지 않았고, 성문 옆에 쌓은 네모난 적대(敵臺)는 4개만 설치되었다.

성 안에는 우물 2곳과 연못 2곳이 있었으며, 성 밖으로 성벽을 에둘러 판 해자(壕子 : 원형의 도랑)는 설치되지 않았다. 병자호란 때 크게 활약한 임견업 장군이 낙안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1626년 성을 새로 수축하여 성문을 보호하는 웅성이 설치되었고, 무너진 여장도 다시 쌓았다. 현재 남아 있는 읍성의 모습은 조선 초기 성곽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읍성은 낮은 구릉을 포함한 평지에 동서 방향의 긴 장방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문과 서문 사이를 중심축으로 하여, 북쪽부분에는 동헌, 내아, 객사, 낙민루, 낙민관 등의 관아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남쪽부분에는 민가, 대장간, 장터, 큰샘 등 민간 건축물이 자리잡고 있다. 동문(樂豐樓)과 남문(雙淸樓)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낙추문(樂秋門)으로 불린 서문은 터만 남아 있으며, 웅성은 남문터와 서문터에서만 흔적을 볼 수 있다.

적대는 기록에 전해지는 대로 동문터 좌우와 동북쪽·동남쪽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있다. 낙안 객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공실조에 따르면 1450년 군수 이인(李愼)이 건립하였다고 하나, 1547년에 부사 오성(吳誠)이 건립하였다고 전하기도 한다. 몇차례의 중수를 거쳐 1909년 이후 낙안초등학교 교실로 사용되었으며 1983년에 개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민가지역에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박준준 가옥 등의 전통민가 9동을 비롯하여 290여 채의 초가집에 120세대 300명 남짓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장간과 감옥 등의 옛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민속축마당, 낙안민속문화축제, 낙안읍성 전통음식축제가 개최되는 등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고창읍성, 해미읍성과 함께 보존상태가 양호한 조선시대 읍성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인 성곽마을이다. 낙안읍성은 1983년 사적 302호로 지정됐으며, 인근에는 출판인 한창기 선생이 평생 모은 6500여점의 소중한 유물을 수집하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자리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